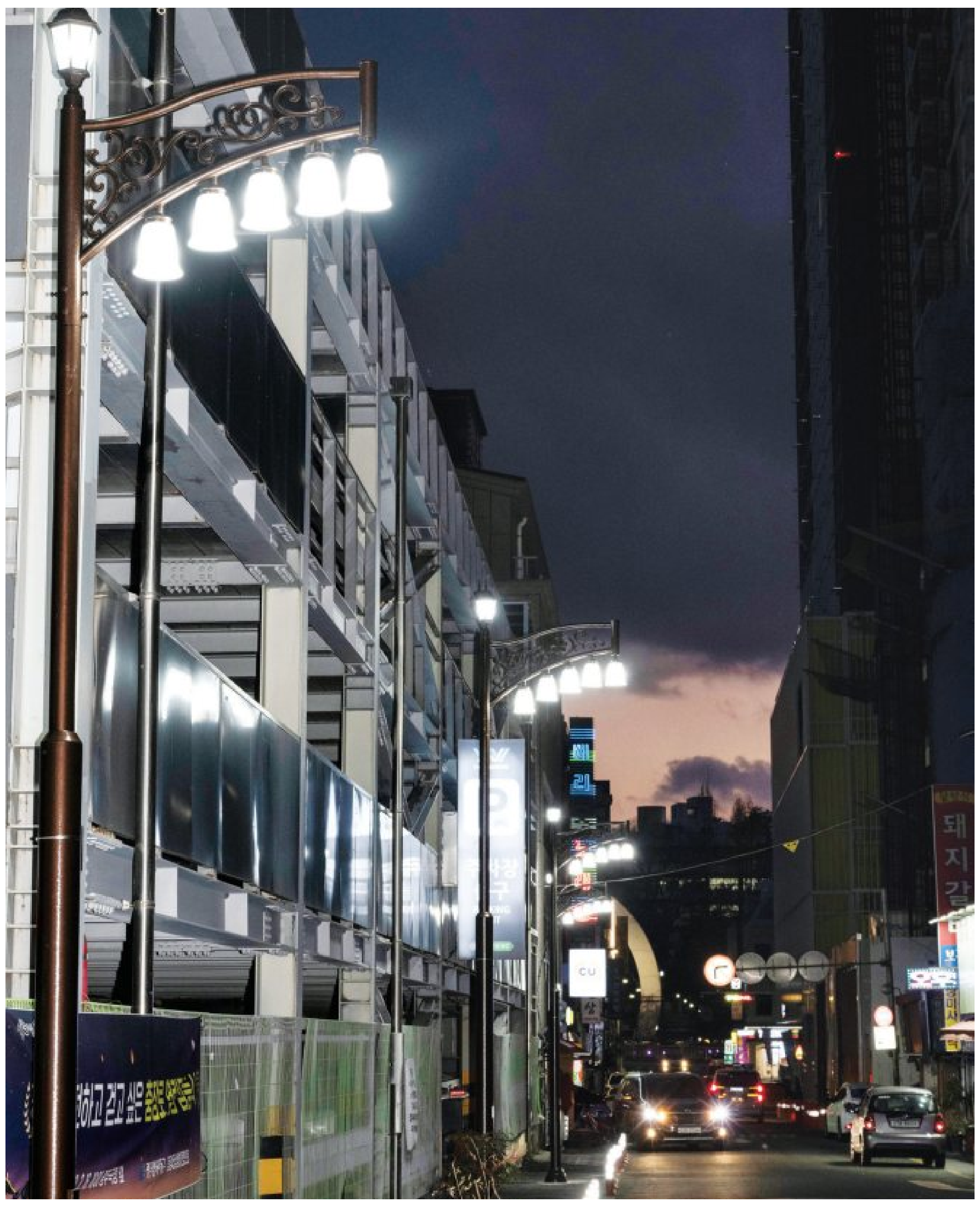
광주 첫 가로등 '영란등' 다시 불 밝힌다

1931년 꽃망울 모양 등 설치…일제가 군수품 조달 위해 철거
광주 동구, 오늘 광주극장 앞 7기 점등식…상권 활성화 기대



15일 광주시 동구 광주극장 앞에 광주시 최초로 설치된 영란등이 복원돼 불을 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동구가 일제시대에 충장로에서 사라진 광주 1호 가로등인 '영란등'(鈴蘭燈)을 다시 복원했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안전하고 걷고 싶은 충장로 골목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광주극장 앞 거리에 7기의 영란등 설치를 완료하고, 16일 점등식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가로등 복원으로 구도심의 야간 경관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민가를 대상으로 상업용 전기 공급이 시작된 것은 1911년이다. 광주에서는 1917년 8월 수기동에 대흥전기가 설립되면서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전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1931년 충장로에 광주 최초의 가로등이 설치됐다. 당시의 가로등은 마치 꽃망울 모양의 등 5~6개를 이어 달았는데, 이 방울꽃 모양의 가로등을 영란등이라고 부른다.

1930년대 설치된 영란등의 모습으로 복원에 참고됐다. 〈광주시 동구 제공〉

1940년 이후 일제는 전쟁을 위해 전기 소비를 줄이고자 네온사인·옥외 간판·가로등의 사용을 중단시켰다. 이후 1941년 8월에는 군수품 조달을 위해 금속회수령을 발동했고, 이무렵 충장로 영란등이 철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충장로 골목 환경을 정비하고 낡은 도심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상인과 방문객 모두가 걷고 싶고, 찾고 싶은 충장로 골목을 조성하기 위해 영란등을 복원했다.

동구 광주극장 앞 도로에 기존 노후된 가로등 6개를 철거해 교체하고, 추가로 한 곳에 더 설치해 총 7개의 영란등 가로등을 설치했다. 복원 장소로 광주극장 앞을 택한 것은 지난 1935년 개관한 광주의 가장 오래된 극장인 광주극장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충장로45상생발전협의회는 충장로에 다시 '빛'을 찾고자 2020년 충장로 오래된가게 출판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수집된 충장로 상점가 영랑등의 자료사진 및 문헌 등을 참고해 영란등 복원을 진행했다.

점등식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충장45상생발전협의회, 충장상인회 등 40여 명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참석해 사업 경과보고, 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현장순회 등 순서로 진행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충장45상생발전협의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충장로의 소중한 역사자원인 영란등을 복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교육감 출마 선언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이 15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지부장은 "학생들의 삶이 광주교육의 중심이 돼야 하고, 교육양극화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힘이 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삶을 위한 교육,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교육감'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의 참여와 실천, 지역 사회와의 협치로 학교와 마을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기 위해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전 지부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교육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 ▲교육양극화 해소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공동체 갈등 해소와 통합 등을 약속했다.

정 전 지부장은 36년간 중등학교 평교사로 근무한 현장교사 출신이다.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행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7일까지 눈·비 오고 춥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17일까지 눈을 동반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7일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춥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16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 등에 최대 8㎝의 눈이 내리겠고, 눈은 잠시 멈췄다가 16일 밤부터 눈구름대가 강해지면서 다시 내리기 시작해 17일 새벽까지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봤다.

16일 광주와 전남지역 일 최저기온은 영하 5~영하 1도, 최고기온은 0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으며 17일 일 최저기온은 영하 9~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1~영상 5도 분포를 보이겠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역민과 함께" 전남대 개교 70주년 행사 풍성

'대학지성의 목소리 70년전'
오페라 카르멘·도서 전시회
농심고·태고루 복원 사업 등

전남대학교가 개교(6월9일) 70주년을 맞아 올 한해 지역민과 함께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전남대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새 시대를 창의적으로 이끌겠다는 당찬 포부 아래 '진리로 이끈 70년, 창조로 이끌 100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했다.

또 대학의 캐릭터를 활용해 용의 여의주, 봉황의 머리, 돌고래의 실루엣과 학교 심볼 마크를 70주년이란 숫자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한 기념 엠블럼도 확정했다.

이는 대학의 정체성, 교육의 혁신적 미래성, 지역사회와의 공유가치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자, 전남대의 강인한 기상과 무한한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먼저 '역사와 함께 한 대학지성의 목소리 70년展'이 5월 중에 광주시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1980년 5월 15~16일 당시 학생기자들이 방송했던 뉴스원고가 공개되고, 1954년 '전대신문' 창간호를 비롯해 70년의 역사를 기록한 신문, 사진, 취재보고서, 편집국장 일기, 음반 등이 전시된다.

6~7월에는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예술대학 창설에 앞장 선 오승윤 화백을 기리기 위해 그의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 전시, 세미나 등이 곁들여지는 '오승윤 화백전'이 전남대 박물관에서 열린다.

또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졸업동문, 지역의 중견 미술인 등 약 200명이 참여하는 대형 기념전이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과 금호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남대 국악학과 졸업생·재학생과 교수들의 연합연주회가 상반기 중 열리고, 하반기에는 음악학과 재학생과 합창단·오케스트라 동문이 참여하는 오페라 '카르멘' 공연이 예정돼 있다.

8월에는 전남대 의대 관현악반, 의대 및 간호대 합창반의 단독공연에 이어 합동공연도 계획돼 있다.

전남대박물관은 기증유물 특별기획전을, 출판문화원은 도서전시회를 준비 중이고, 도서관은 지역성과 역사성을 지닌 희귀 고문헌 30종을 선정해 특별 전시하는 '고문헌, 도서관에서 보물찾기'를 펼친다.

기념행사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업이 '농심고(큰북) 및 태고루 복원사업'이다. 광주자연과학고동창회에서 농심고를 복원해 전남대에 기증하고, 이를 설치할 태고루를 조성해 6월에 제막할 예정이다.

70주년 기념행사는 일회성 소비형 축제가 아니라 학문과 기록으로 계속된다. 교육과 연구를 사명으로 하는 대학답게 공학심포지엄, 학생참여형 미래농업전문가 포럼, 인공지능 교육혁신포럼 등이 잇따라 열린다.

또 전남대학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구술증언집에 신문자료, 수기, 수사 및 재판기록, 각종 문헌, 관련자들의 구술 채록 및 분석 등을 담은 '전남대학교 민주화운동사'가 발간된다.

단과대학 및 대학원, 기관별 역사를 살펴보고 향후 30년 비전을 제시하는 '전남대 100년, 미래를 묻고 답하다'와 '2010~2020, 전남대 10年史'가 편찬되고, 동문과 지역민의 참여로 사진자료와 약사(略史)를 담은 '전남대 70년을 살피다'도 선보인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